

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

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0년 6월 14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171장 “비둘기같이 온유한” (새187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24 번 시편(Psalm) 100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 장 “세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
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
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(Galatians) 5:13-26 양용일 집사

설교 Sermon “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” 김일선 목사  
(The Life Led by the Holy Spirit)
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

봉헌 Offerings (특송: 윤홍준 집사, 반주: 고혜정 집사) 다같이

\*송 영 Doxology 353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317) 1 절 다같이

\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

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

\*찬 송 Hymn 341 장 “너 하나님께 이끌리어” (새 312) 다같이

\*축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

\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.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

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며,

이 세상에 미움과 갈등이 더해가는 것은

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,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갈등을 한탄하면서도,

정작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.

**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.”**

예수님께서 **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,**

**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?”**

또한 **“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**

**숨기우지 못할 것”**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

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소금과 빛의 사명이 드러나며,

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.

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**

(\*마 5:13-14)

오늘의 성경/말씀 TODAY'S SCRIPTURE

“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.” (한글개역 갈 5:16)

“So I say, live by the Spirit,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.” (NIV Galatians 5:16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6/14 (주일)	6/15 (월)	6/16 (화)	6/17 (수)	6/18 (목)	6/19 (금)	6/20 (토)
	신20	신21	신22	신23	신24	신25	신26
본문	시107 사47 계17	시108,109 사48 계18	시110,111 사49 계19	시112,113 사50 계20	시114,115 사51 계21	시116 사52 계22	시117,118 사53 마1

수/요/성/경/공/부

수요 성경공부(6/17수 오후730)	“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” (민 16:39-50)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지난 주일(6/7) 말씀

“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”(롬 12:5-13)

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은 (크게 구분하면) 애굽 왕 바로의 법을 따르던 노예의 신분에서,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, 지위가 바뀐 날이었고, (또한) 소유가 전혀 없던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,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, 처음으로 거둔 곡식과 열매를,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던 감사의 날이었습니다. (그래서) 이처럼 오순절(또는 초실절)로 불리던 바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, 1)새로운 존재(신분)로, 그리고 2)새로운 삶의 방식으로, 전환되는 변화의 날이었습니다.

오늘 본문은 “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, 이를 정리하면, 1)첫째,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며, 2)둘째,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며, 3)셋째,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

주님의 몸 된 교회는 ‘성령 강림’(성령의 임재)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에,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,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에서부터,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,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. 그리하여, 문제와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,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며,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메/모